

공무국외여행 연수보고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목 차

I. 연수개요	1
1. 연수기간, 국가	1
2. 연수단 구성	2
3. 연수일정	4
II. 방문국 개요	6
1. 호주	6
2. 뉴질랜드	12
III. 주요방문기관	18
1. 펜리스 시청	18
2. 레가타 센터	20
3. 시드니 올림픽 파크	21
4. EIT 폴리텍대학	23
IV. 이문화 체험	25
1. 블루마운틴, 시드니 시내 등	
V. 시사점 및 연수소감	29

I. 연수 개요

- ❖ 탁월한 리더십을 통한 도시개발과 다양한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킨 호주를 방문하여 선진 자치행정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다.
- ❖ 선진 자치행정 사례를 직접 체험하여 벤치마킹함으로써 자치 행정에 대한 통찰력을 함양한다.
- ❖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템 개발 및 다양한 자치행정 프로그램 개발의 계기를 마련한다.

1. 연수기간 : 2014. 9. 30 (화) ~ 10. 7 (화) (6박 7일)

2. 연수국가 : 호주, 뉴질랜드

3. 연수단 구성

- 단 장 : 강서구의회 부의장 경기문
- 부단장 :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동현
- 단 원 : 8명(이영철, 곽판구, 박상구, 고재익, 심근수, 정정희, 강미영, 김성진)
- 수행공무원 : 4명(의정팀장 오종열, 정혜선, 김승환, 이윤정)

4. 연수일정

- ❖ 일 자 : 2014년 9월 30일 (화) ~ 10월 7일 (화) - 6박 8일
- ❖ 방 문 지 : 호 주 [시드니], 뉴질랜드 [오클랜드, 로토루아]

일 자	지 역	주 요 활 동
09.30 (화)	인천	인천공항 출발 (KE121)
10.01 (수)	시드니 루라 펜리스 스트라스필드 시드니	시드니공항 도착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참관 ※ 세 자매 봉, 에코 포인트 레가타센터(Regatta Centre) 도착 오찬 (펜리스시의회 주관) 레가타센터 참관 손튼개발구(Thornton Estate) 참관 글렌모어 주민센터 (Glenmore Child & Family Precinct) 「한국 민화 전시회」 참관 ※ 펜리스 시립 화랑(Penrith Regional Gallery) 펜리스시 시청 (Penrith Civic Centre) 방문 태극기 게양식 참석 및 축하 펜리스 → 스트라스필드 만찬 (시도지사협의회 시드니사무소 주관) ※ 스트라스필드(한인타운) 스트라스필드 → 시드니 호텔 체크인 ※ Novotel Brighton Beach
10.02 (목)	시드니 포트스테판 시드니	기상 및 조식 호텔 출발 → 포트스테판 ※ 오스트랄리안 랩타일파크 참관 호주 와이너리 참관 중식 포트스테판 사막 참관 스탁톤 비치 → 시드니 석식 호텔 귀환 후, 휴식

<p>10.03 (금)</p>	<p>시드니</p>	<p>기상 및 조식 시드니 도시 참관 ※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리지 중식 (마제스틱 런치 크루즈) 세스맥퀼리포인트 보타닉가든(식물원) 참관 시드니대학 방문 및 참관 시드니 동부지역 참관 ※ 더들리페이지, 갭팍, 본다이 비치 시드니 올림픽파크 방문 및 참관 석식 호텔 귀환 후, 휴식</p>
<p>10.04 (토)</p>	<p>시드니 오클랜드 로토루아</p>	<p>시드니공항 출발 → 오클랜드공항 도착 오클랜드 도착 후, 가이드 미팅 오클랜드 → 로토루아 로토루아 도착 및 명소 참관 ※ 마오리 전통 민속문화 체험 석식 호텔 체크인 ※ Copthorne Rotorua</p>
<p>10.05 (일)</p>	<p>로토루아</p>	<p>기상 및 조식 아그로돔 농장 참관 중식 테푸이아 지열지대 마오리 민속마을 참관 석식 호텔 귀환 후, 휴식</p>
<p>10.06 (월)</p>	<p>로토루아 오클랜드</p>	<p>기상 및 조식 로토루아 명소 참관 (레드우드수목원)산림욕체험 중식 로토루아 → 오클랜드 메모리얼파크 참관 폴리텍 대학 방문 석식 호텔 체크인 ※ Auckland City Hotel</p>
<p>10.07 (화)</p>	<p>오클랜드</p>	<p>오클랜드공항 출발 인천공항 도착</p>

II. 방문국 개요

□ 호 주



1. 위 치 : 남태평양과 인도양 사이
2. 기 후 : 서부 40% 및 북부의 80%가 열대성, 나머지 온대성기후
3. 면 적 : 7,682,300km² (한반도의 약 35배)
 ※ 세계에서 여섯 번째 크기
4. 인 구 : 약 2,118만명 (2007년, 인구증가율 1.6%)
5. 수 도 : 캔버라(Canberra, 34만명)
6. 주요도시 : 시드니(Sydney), 멜번(Melbourne), 퍼스(Perth),
 브리스번(Brisbane), 애들레이드(Adelaide)
7. 주요민족 : 앵글로색슨(80%), 기타 유럽 및 아시아계(18%),
 원주민(2%)
8. 주요언어 : 영어
9. 종 교 : 기독교 73%(성공회 24%, 천주교 26%,
 감리교 9.6%, 연합회 7.6%, 장로교 3.6%,
 회람정교 2.9% 등), 무교 25%, 기타 2%
10. 교 육 : 의무교육 10년(6~16세)

○ 정 치

- 1) 국가성립 : 호주연방 헌법안 영국의회통과 정식탄생
- 2) 독립 일 : 1901. 1. 1
- 3) 국 경 일 : 1. 26(Australia day)
 - ※ 1988년 영국인의 최초 정착기념(시드니)
- 4) 정 체 : 입헌군주제(영국의 의원내각제에 미국식 상원 가미)
- 5) 국가원수 : 엘리자베스 2세 여왕(Queen Elizabeth II)
 - (Michael Jeffery 총독이 대리)
- 6) 의 회 : 양원제(상원 76명, 하원 150명)
- 7) 총 리 : 케빈 러드(The Hon. Kevin Michael Rudd, 노동당, '07.12.3취임)
- 8) 외교장관 : 스티븐 스미스(The Hon. Stephen Smith)
- 9) 주요정당 : 노동당(ALP: Australian Labor Party), 자유당(LP: Liberal Party),
 - 국민당(NP: National Party), 민주당(AD: Australian Democrat)
- 10) 국제기구가입 : UN(45. 11), ILO, FAO, UNESCO, WHO,
 - IDA, IFC, IMF, IBRD
- 11) 영 해 : 12해리
- 12) 국 방 : 육군 25,146, 해군 12,644, 공군 13,408,
 - 민간인/예비군 39,713
 - ※ 국방예산(2007/08) : A\$219.99억(약 194억달러)
- 13) 특기사항 : 2007. 11월 총선에서 노동당이 자유-국민연합의
 - 5기 연속 집권을 저지하고 집권

○ 경 제

- 1) 국내총생산 : A\$10,319억(2007.3월 기준, 전년대비 4.4% 성장, 세계17위)
 ※ 1인당 GDP : US\$34,359(세계 14위)
- 2) 화폐단위 : Australian Dollar(1A\$=0.9415US\$, 2008.6.18)
- 3) 주요자원 : 철광석, 석탄, 보크사이트, 우라늄, 원유, 천연가스, 밀, 소고기
- 4) 무역(2007) :
 - 수출 : A\$ 2,175억(약 US\$ 1,998억)
 - 수입 : A\$ 2,367억(약 US\$ 2,083억)

○ 사 회

호주 가정은 홀 엄마(Single Mum)와 홀 아빠 ,그리고 의붓 아빠나 엄마와 같이 사는 아이들 수가 50%를 육박하고 있다. 특히 의붓 아빠나 엄마와 사는 가정과 그들이 데리고 온 전실 자식들과 같이 사는 가정에 사는 아이들 중에 17세 미만 어린이들이 무려 175,000명이 된다. 이들 가정은 전체 가정에 20%나 되고 있다.

이런 가정이 늘어나는 이유는 젊을 때는 이혼 후에 혼자 살다가 나이 들어서 다시 재혼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호주의 이혼율은 등록된 결혼 가정에 33%나 되며 이혼의 평균 연령도 크게 높아져서 20년 전에는 남자가 37.5세였던 것이 2005년도에는 43.5세로 높아지고 여자들도 34.7세에서 40.8세로 높아졌다.

반면에 결혼하는 사람의 수는 1986년도에는 66%에서 근래는 55%로 하락하였다. 나머지는 결혼등록 없이 “사실상의 부부”로 살아가고 있다. 결혼 연령도 남자가 25.6세에서 30세로 크게 높아졌고 여자도 23.5세에서 28세로 높아졌다.

인터넷이 연결된 가정은 70%이며, 55세-64세 고령자들의 이용이 2006년에는 40%에 불과했던 것이 2년 사이에 55%로 크게 증가되는 추세이다.

1996년도에는 3%에 불과했던 대중교통 이용률은 유가 급등으로 시드니는 25%가 넘고 전체적으로는 19%나 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 중 75%가 자동차를 이용하며,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5%이다.

호주 사람들은 평균 주에 38.2시간을 일을 해왔고 근로자의 20%는 무려 48시간을 일을 해왔으나 근로자들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에 34.6시간만 일을 원하고 있다.

○ 교 육

호주의 교육제도는 초등학교를 7년간(유치부에서 6학년까지) 다니고 중고등학교를 6년간(7학년에서 12학년) 다닌다. 근래 사립학교를 선호해서 공립학교의 등교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2007년도에는 전체적으로 66.5%만이 공립학교에 다닌다. 초등학교 70%, 7학년-10학년까지는 62.2%, 11-12학년 때는 무려 59.9%로 학년이 높을수록 공립학교를 떠난다.

공립학교 출석률이 1970년도에는 78%, 1980년도에는 76%, 2000년도에는 69%로 크게 감소했다. 사립학교 중에는 “앵글리칸 (성공회) 계통이 25%로서 가장 많고 기독교 분파를 초월한 사립학교가 13.7%, 카톨릭교회가 10.4%의 학생이 등교하고 있으며 연합교회가 9.1% 등으로 되어 있다.

TAFE나 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이 원주민들의 경우 10년 전(1996년도)에는 15%에 불과 했으나 근래는 29%로 크게 증가되었다. 일반 호주 사람들은 도시에 살고 있는 경우 TAFE나 대학졸업자가 44%에서 2006년도에는 57%로 증가되었다. 반면 농촌 지역은 이 기간 동안 30%에서 36%만 증가세를 보였다.

지방이라도 호주 백인은 무려 50%이상이 학위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학생들에 대하여 서부시드니 대학 알렌 로버슨(Alan Robson) 부총장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대학에서 15%정도는 이들 학생을 위해 할애해 주고 있지만 부유층 학생이 선호하는 경쟁이 심한 의학, 법학, 치과, 건축과 등에는 별로 입학 기회가 없으며 인문과학 분야, 비교적 경쟁력이 없는 과를 졸업하고 있어서 가난의 대물림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함.

○ 우리나라와의 관계

1) 공식관계

구 분	한 국	비 고 (북 한)
관 계 수 립 일	61. 10. 30	74. 7. 30 (75. 11. 6 외교관계 정지, 2000.5.8 외교관계 재개)
공 관 설 치 일	62. 1. 23 (53. 3 주시드니 총영사관개설, 62. 1 대사관 승격 후 폐쇄, 70. 6. 21 재개설)	74. 12. 30 (75. 10. 일방철폐, 75. 11. 6 폐쇄, 2002.5 재설치하였다가 2008.1월말 재정상의 이유로 폐쇄)
공 관 장	김우상 대사	
남·북한 주재 공관	62. 6. 5	75. 4. 30 (75. 11. 6 철수, 2000.5월 외교관계 재개 후 주중국 호주대사가 겸임)

2) 주요협정

무역협정(75.6 무역 통상협정으로 개정)(65.9), 문화협정(71.5), 원자력 평화적 이용협정(79.5), 이중과세방지협정(82.7), 어업협정(83.11), 범죄인 인도조약(90.9), 항공협정(92.2), 형사사법공조조약서명(92.8), 산업기술협력협정(93.6), 취업관광사증 양해각서(95.3), 환경협력 양해각서(95.9), 핵물질 재이전 교환각서(97.8), 과학기술협력협정 서명(99.9), 전자상거래 양해각서 서명(99.9), 자원협력 양해각서 서명(99.9), 민사사법공조조약(2000.1), 에너지·자원협력협정(05.10)

3) 무역관계

(단위 : 백만미불)

년 도 별	수 출	수 입	비 고
2004	3,378	7,438	수출 : 자동차, 무선전화기, 경유, TV, 타이어, 섬유화학, 철강제품 등 수입 : 원유, 석탄, 철광석, 알루미늄, 니켈, 육류
2005	3,812	9,859	
2006	4,692	11,309	
2007	4,691	13,232	

4) 투자: 2007년말 현재 누계

구 분	건수/투자액	진 출 분 야
○ 호주의 대한 투자	302건/ 16.1억미불	맥과리은행(금융), 홀덴(대우차), 코카콜라 (음료), 오세아니스(수족관)
○ 우리의 대 호주 투자	839건/ 32.4억미불	POSCO, 고려아연, 삼성, LG, 한솔(임업) 등이 주로 광업 분야 투자

5) 경제기술협력

- 어업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에너지·자원협력 협정 체결
- 양모가공, 석탄개발, 농·목축업 분야에서 합작개발투자협력
- 아연제련 석탄개발 분야 합작투자
- 정보·통신기술 분야 투자협력

6) 우리나라기관 진출현황

- 정부기관 : 대사관, 주시드니총영사관
- 정부투자기관 : KOTRA(시드니, 멜본), 관광공사, 외환은행, 대한광업진흥공사
- 일반기관 : 종합무역상사 지사 등 35개 업체 진출

7) 교민현황 : 약 10만명(2007), 유학생 약 22천명 포함

- 약 70% 이상이 시드니 중심의 NSW주 거주

8) 특기사항

- 한국전 참전(육군 2개 대대, 해군함정 3척, 공군 1개 전투기대대) : 총 17,000여명(그 중 339명 전사)
- 양국간 상호보완적 경제구조에 기초한 경제자원협력관계 긴밀화
- 2007년 현재 호주는 우리의 9대 교역국이자 6대 수입시장이며, 우리는 호주의 4대 교역국이자 3대 수출시장
- 호주의 3대 수출시장(일본, 중국, 한국 순)이 동북아에 집중되어 있어 동북아의 평화·안정 유지(북핵문제)에도 지대한 관심 견지

□ 뉴질랜드



1. 위 치 : 남태평양의 오스트레일리아 남동쪽
2. 기 후 : 해양성 기후, 1월 평균 기온 20℃, 7월 평균 기온 11℃
3. 면 적 : 268,680km²(한반도의 약 1.2배)
4. 인 구 : 4,600,000명(2014년 1월 기준)
5. 수 도 : 웰링톤(Wellington)
6. 주요도시 :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로토루아
7. 주요민족 : 앵글로색슨계(90.3%), 마오리인(9.7%)
8. 언 어 : 영어(English), 마오리어(Maori)

○ 정 치

뉴질랜드는 입헌 군주국가이다. 국가 원수는 영국여왕인 엘리자베스(Queen Elizabeth) 2세이며, 여왕은 뉴질랜드 총리가 제청하여 임명하는 총독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총독(Governor-General) 임기는 5년이다. 2011년 현재 뉴질랜드 총독은 2006년 8월 23일에 취임한 아난드 사티아난드(Anand Satyanand)이다. 총독은 뉴질랜드 주권을 대표하지만 평상시에는 상징적인 정치 권력만 보유한다. 정권이 변동할 때 국가권력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의회 내 다수당의 당수에게 정부 구성을 의뢰하고 의회를 소집 및 해산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한 동의 권한을 보유한다.

뉴질랜드는 형식상 군주제이지만 실체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한다. 정부의 세입·세출을 비롯한 주요 활동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부는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지방정부

뉴질랜드 지방정부는 86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며, 86개의 지방정부는 12개의 광역 정부(regional authorities), 5개의 통합 지역정부(unitary authorities), 69개의 지역정부(territorial authorities)로 구성되어 있다.

의원과 시장의 선출방법은 광역정부는 선거후 최초로 개최되는 의원 회의에서 의장(council chairpersons)이 선출된다. 시(cities)와 구(districts) 정부의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로 입후보한 자들 가운데 주민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지방선거는 매 3년마다 10월 두 번째 토요일에 실시된다.

지역정부 및 통합 지역정부의 시장(Mayor)은 주민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의회에 의해 불신임될 수 없으나, 광역정부의 수장은 의장(chair)이며, 의장은 각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들 중에서 선출되며 불신임될 수 있다. 시장과 의장의 역할은 당해 지방정부 및 지역공동체의 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운영방향을 리드할 뿐만 아니라, 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당해 지방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며 지역공동체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지방정부는 위원회(통상 지방정부의 의원의 임기와 동일한 기간 설치되는 상임위원회), 하부위원회(sub-committees)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그 외 다른 의사결정체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다른 지방정부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고 대중 위원회(예를 들어 구 보건위원회(district health boards))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한다. 지방정부에 설치되는 위원회에는 비니지스 장려 위원회(Corporate Business Committee), 경제발전 위원회(Economic Development Committee), 지역공동체 개발 위원회(Community Development Committee), 환경관리 위원회(Environmental Management Committee), 전략적 관리 위원회(Strategic Management Committee), 청원 위원회(Hearings Committee)가 있다.

또한 지역정부는 당해 지방정부에 대해 지역 공동체의 의사에 관하여 대표성을 보완하고 조언 기능을 담당하는 커뮤니티 보드를 두고 있다. 이들은 지방정부의 위임을 받아 지방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규제책임을 수행하기도 한다. 지방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에는 도로 건설과 관련한 변경, 도로상 교통류 흐름 통제 장치(roundabouts), 주류판매업 허가 신청에 관한 주민 의견수렴, 지방정부를 위하여 자원관리법상의 의견제출, 공원조성을 위해 비축할 토지를 정하는 일 따위들이다. 커뮤니티 보드는 법인이 아니며(unincorporated bodies), 당해 지방정부로부터 직접 자금을 지원받는다. 커뮤니티 보드는 직원을 채용할 수도 없다. 다만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행정적 시설이나 자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은 지방세(rates), 투자수입(investments), 유류세, 수수료(fees and charges) 수입을 통하여 올린다. 중앙정부가 일부 재정적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 주로 도로 건설과 관련한 보조금이 있다.

○ 경 제

뉴질랜드는 2000년대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¹⁾의 평균 경제성장률인 2.6%를 상회한 평균 4%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2005년~2009년(2008년 제외) 간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뉴질랜드 경제성장률은 1/2수준으로 감소되었다. 반면에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제성장세는 일관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010년 뉴질랜드 경제는 5분기 연속 경제 성장세, 실업률 하락, 낮은 인플레이션과 단기 이자율, 주요 무역대상국 경제의 성장세 시현으로 순조롭게 회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순외채는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85%에 이르는 1205억 미국달러(1625억 뉴질랜드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캔터베리(Canterbury) 지진으로 3/4분기 경제성장률은 둔화되었다. 정부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경기 부양에 집중되었다.

뉴질랜드 정부의 예산 정책은 2009년에 수립된 6대 경제전략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6대 경제 전략은 ① 조세제도 정비 ②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③ 교육 및 기술력 강화 ④ 비즈니스 혁신 및 통상 지원 ⑤ 관료주의 철폐와 규제 개선 ⑥ 인프라에 대한 투자이다.

○ 사 회

뉴질랜드의 전체 인구는 약 380만명으로 그 대부분은 영국계 백인이며, 원주민인 마오리족은 약 1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일상 용어는 뉴질랜드영어(Kiwi English)를 사용하며 마오리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종교는 성공회가 24.3%이다. 뉴질랜드는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으며 현재는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단계이나 아직도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한국과의 관계

뉴질랜드는 1949년 7월 우리나라를 승인하였으며 1950년 6·25전쟁 중에는 육군과 해군 5,350명을 파병하였고, 사상자는 120명에 달하였다.

뉴질랜드군은 영연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였는데, 영연방군이 치른 가장 큰 격전은 1951년 4월 22일부터 시작된 중국군의 제1차 춘계공세를 맞아 경기도 가평에서 벌인 가평전투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1967년 9월 가평에 영국·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뉴질랜드 등 영연방 4개국의 6·25참전기념비가 건립되었다.

또한, 뉴질랜드의 한국전참전용사회는 가평전투를 기념하여 1976년 이래 매년 가평북중학교 학생 1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4월 25일을 현충일로 정하고 있어 가평전투는 양국 국민에게 더욱 의의가 깊다.

1962년 3월 26일에는 양국 간의 외교관계가 수립되었으며, 1971년 6월에는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이, 같은 해 7월에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이 각각 개설되었다. 뉴질랜드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유엔에서의 한국안 공동제안국 및 중심그룹 회원으로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여 왔다.

뉴질랜드와 한국간의 긴밀한 양국관계는 한국전쟁에서부터 시작된 견고한 정치, 경제, 안보적 유대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1962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서울에 뉴질랜드 대사관이 1971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근래 들어 양국 관계는 정부간 교류, 경제 및 무역, 인적 교류, 과학기술, 교육, 영화, 문화,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들을 통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정부간 교류가 활발한 가운데 장관급을 포함 양국 정부대표간 다양한 분야의 회의가 정례화되어 있습니다. 연례 외교장관 회의, 외교통상부 협의회, 경제·재무·정치 및 군사·세관·산림·농업 협의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뉴질랜드 총리 펠로우십 프로그램과 양국 국회간 교류를 통해 중요한 정치 및 국회간 유대가 구축되었다.

약 32,000여 명에 달하는 뉴질랜드의 한국 교민사회는 양국관계를 위한 왕성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최신 인구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체 뉴질랜드 인구의 거의 1%가 한국 교민이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 인도 다음으로 뉴질랜드에서 큰 교민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일인당으로 보았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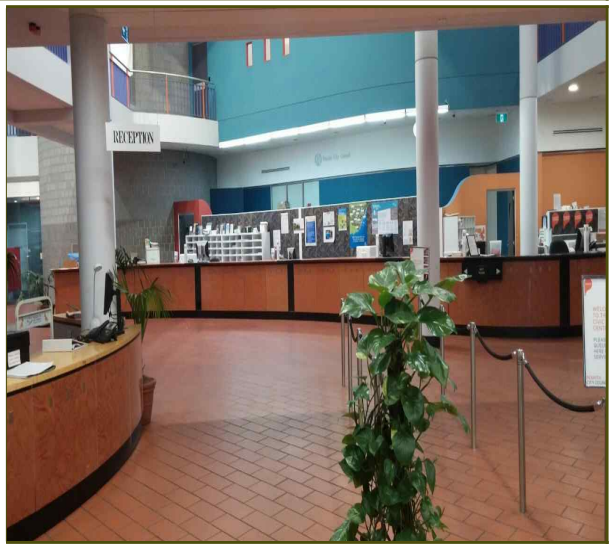
뉴질랜드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한국 교민사회를 가진 나라 중 하나로 유명한 교민으로는 2008년 역사상 최연소로 US 아마추어 골프 챔피언십을 우승한 대니 리 선수도 그 일원입니다. 양국 도시들간에 자매결연도시 협약도 활발히 체결되고 있다.

한국은 뉴질랜드의 제6대 관광시장으로 양국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 젊은이들은 일년 한도 내에서 서로의 국가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워킹홀리데이 모집 인원수는 1천800명(2008년 대비 20% 증가)으로, 매년 한국인 정원은 마감되는 반면, 뉴질랜드인 신청자 수는 한국인 신청자수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한국에는 약 1천5백명~2천명선 규모의 전문직업인과 영어교사, 뉴질랜드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들로 구성된 뉴질랜드 교민사회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유학중인 한국인 학생수는 중국 다음으로 많으며, 국가적으로도 양국 과학부처간에 1997년 체결된 “과학기술 협력 협정”에 따라 다양한 합작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협정하에 환경과학 및 바이오 테크놀로지, 재료과학에 초점을 둔 제1차 중점프로그램(Focal Point Programme)이 수립되었고 식품 혁신 및 재생에너지, 나노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2차 중점프로그램은 이명박 대통령의 뉴질랜드 방문 중에 수립되었다.

III. 주요 방문기관

Penrith City (팬리스 시청)	
주 소	601 High St, Penrith NSW 2750
전 화	+61 - 2 - 4732 - 7782 / 0417 679 659
웹사이트	www.penrithcity.nsw.gov.au
기관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팬리스 시청은 웨스턴 시드니로써 도시계획 및 개발, 주요행정, 유통, 교육 및 문화 센터 등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 팬리스 시청은 400,000명의 주민에게 고유의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는 주요 생활을 목적으로 개발된 재택간호와 주민들을 위한 주거환경, 문화, 엔터테인먼트, 품질의 의료 서비스, 교육, 환경 연구 등 제공해주며, 또한 활기찬 지역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위하여 산업 교육 및 훈련 등을 제공하여 보다 나은 사업의 장으로 시민들에게 품질의 일자리 등 기회 제공을 하고 있다. ○ 특히 시가 앞장서서 시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 친화적인 자연보호 가전제품 등의 홍보 및 보급을 통해 시 전체를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음.



□ 주요행사

○ 국기 게양식

펜리스시 주관으로 개천절을 맞이하여 호주를 방문한 우리 연수단을 위하여 국기게양식을 개최해주었다.

일시는 2014년 10월 1일, 장소는 펜리스시 시청앞 광장에서 연수단 13명과 펜리스시 10여명, 시드니 총영사관 3명, 주민들 10여명정도가 참석하여 한인 2세가 연주하는 전통 북 공연 후 태극기, 호주국기, 주기, 원주민기가 함께 게양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우리 연수단은 타국에서 태극기 게양식을 바라보며, 뜨거운 애국심과 감동을 느낄 수 있었고 이러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준 펜리스시에 깊은 감사를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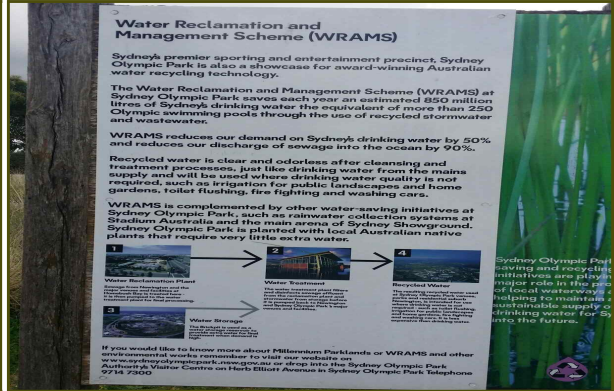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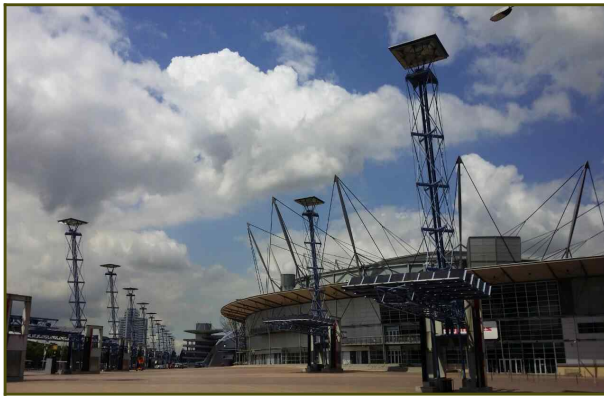


레가타센터	
주 소	Level 3, 6B Figtree Drive, SYDNEY OLYMPIC PARK NSW 2127
전 화	13 13 02 (02) 9006 3700
웹사이트	http://www.dsr.nsw.gov.au
기관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 년 시드니 올림픽 기간 동안 56 개국에서 825명의 선수가 참가한 국제적인 조정 경기장. ○ 매년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여, 거의 50만명 이상의 방문자를 유치하는 등 인기 스포츠, 기업의 사회적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센터설계시 가장 중요시 했던 고려대상은 친환경적인 요소로써 기본 수생 식물과 물새 자연 서식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30,000여종 이상의 토착 나무와 관목이 심어져있어 친환경적인 자연 담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시드니 올림픽 파크

주 소	SYDNEY OLYMPIC PARK AUTHORITY (7 FIGTREE DRIVE, SYDNEY OLYMPIC PARK, NSW 2127)
전 화	+61 - 2 - 9714 - 7473
담 당 자	Dr. Marianne Sheumach (marianne.sheumack@sopa.nsw.gov.au)
웹사이트	http://www.sydneyolympicpark.com.au/insighttours
기관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건국 200년 기념으로 만들어진 Sydney Olympic Park 내에 위치한 생태 및 습지 보존 공원 ○ 시드니 올림픽 경기장 테니스 경기장을 지으려던 부지에 멸종위기종인 '그린 앤 골든개구리'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지를 다른곳으로 이전하고 개구리 서식지를 만들어 줄 정도로 친환경적인 정책을 펼침.



□ 주요특징

○ 부지의 특성

시드니 올림픽파크는 수십년간 각종 폐기물이 매립된 지역에 조성된 공원으로 공원 중심부에는 대형 인공언덕들이 있으며 이 인공언덕들 내부에는 수만톤의 쓰레기가 아직도 묻혀있어 다량의 매탄가스를 생산하고 있음. 또한, 공원 내부에서 사용하는 상수도는 먹을 수 있는 물과 중간단계의 물로 구분되어 공급되고 있으며, 중간단계의 정수를 거친 물(중수도)은 조경수, 대형분수, 변기물, 호수, 차량세차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상·하수 처리 시스템

특히, 주목할 점은 공원내부에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연간 850만리터를 처리하고 있으며, 곳곳에 조성된 호수는 이러한 하수를 처리한 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임. 또한, 호수가 고여서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태양전지를 이용한 펌프로 정화필터를 운영하고 있음.

아울러, 호주 유수의 대학인 시드니대학에서는 환경학과의 실습장을 공원 내에 운영하고 있음.

○ 에너지 이용현황

주요 가로등은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설치하였으며, 부지에서 생산되는 메탄가스를 이용하여 난방시설을 가동 중에 있음.

EIT 폴리텍대학	
주 소	501 Gloucester Street Taradale, Napier 4142
전 화	+64 6 974 8000
웹사이트	http://www.eit.ac.nz
기관개요	<p>○ 뉴질랜드 국립 폴리텍인 EIT 부설어학교로 네이피어와 오클랜드 캠퍼스에 위치해 있으며, 이론과 실용적인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p> <p>EIT는 지역 사회와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 주요 산업과 넓은 고용 시장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독특한 프로그램은 포도 재배, 와인, 식품 과학 및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등의 130개 이상의 다양한 학습과정이 있다.</p>



강서구의회 뉴질랜드 공립기술대학 EIT와 업무협약(MOU) 체결.

Lv1 KoreaPost 2014.10.10 11:00 | (210)2840 | 조회 55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장 이연규, 단장 부의장 경기문)는 10월 8일 뉴질랜드 현지에서 뉴질랜드 공립기술대학인 Eastern Institute of Technology와 교육문화교류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강서구 학생들에게 뉴질랜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 다른 교육 시스템을 공유함으로써 두 나라간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본 업무협약을 진행한 뉴질랜드 교육법인 SM Global 양신중 본부장은 "강서구 의회가 발달된 뉴질랜드 교육의 기회를 강서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언급하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인해 강서구 학생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교류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끝.

□ 주요행사

○ 교육문화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강서구의회와 뉴질랜드 공립기술대학인 EIT는 양국가간 교육과 문화 교류는 물론 강서구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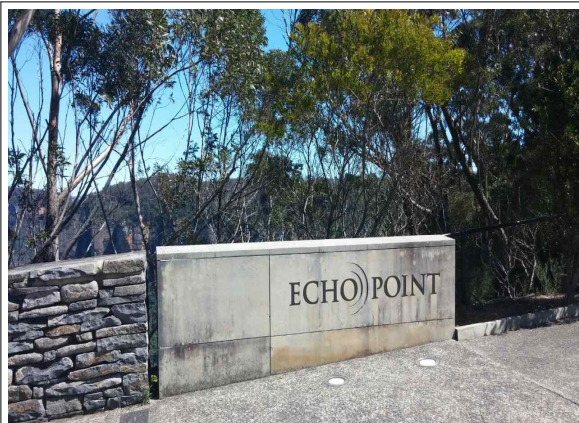
IV. 이문화 체험

□ 블루마운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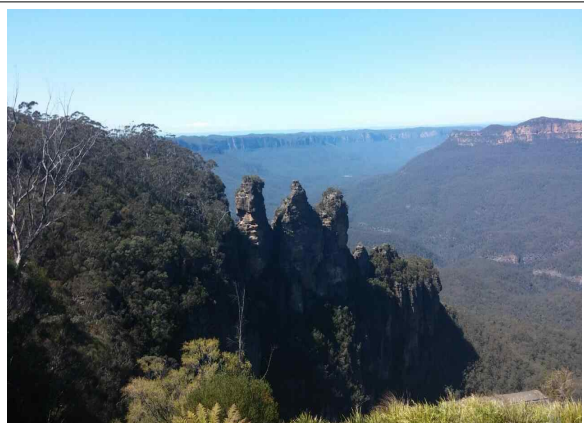
시드니 근교에서 손꼽히는 휴양지로, 호주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불릴 정도로 웅장한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해발 1,000m급의 산이 줄줄이 이어지고, 햇살이 강한 낮에는 유칼리나무 숲이 증발하는 수액 때문에 세상이 푸른 안개로 뒤덮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블루 마운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에코포인트(Echo Point)는 블루마운틴의 웅대한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대다. 왼쪽 아래로는 블루마운틴의 상징 같은 세 자매 바위를 볼 수 있다.

세자매바위(The Three Sisters) 에코 포인트 아래에서 나란히 서 있는 세 개의 바위를 가리킨다. 전설에 따르면 원래는 일곱 자매였는데, 침식작용 때문에 네 자매가 출가해버려 지금은 셋만 남아 있다고 한다. 오랜 세월 풍파를 겪은 만큼이나 다양한 전설이 깃든 곳이기도 하다.



< 에코포인트 >



< 세자매 바위 >

□ 시드니 시내 관광(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리지, 보타닉가든)

시드니는 호주개척의 출발점이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로 뉴 사우스 웨일스(New South Wales) 주의 주도이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에 세워진 시드니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보다 더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으며 전 세계 도시평가에서도 근간에 연속 3년간 최고의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고 한다.

세계 3대 미항인 시드니항과 코발트 빛 바다와 어우러지는 오페라하우스가 그 위용을 자랑하며, 왼쪽으로는 하버 브릿지가 완만한 호를 그리며 맞은 편만으로 뻗어있고, 고층 빌딩이 나열되어 있어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인상이었다.

시드니의 대표적 상징물인 오페라 하우스는 200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며 이 건물은 실제로는 조개껍질 모양의 건물뼈대 아래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극장과, 연주회장 및 공연장을 갖춘 복합건물이며, 시드니 하버 브리지는 시드니 도심에 위치한 철제 아치교로, 세계에서 4번째로 긴 아치교이다.

시드니 중심상업지구와 북쪽해변 사이의 시드니항을 가로질러 철도, 차량,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을 담당하는 주 교량이며, 아치교 특유의 디자인으로 인해 시드니 지역 사람들에게는 "옷걸이 (The Coat Hanger)"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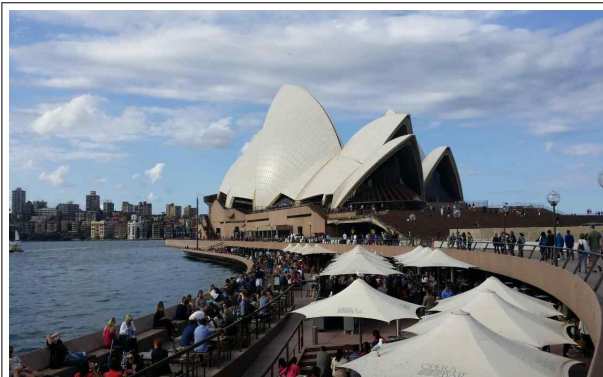
보타닉가든은 오페라하우스와 연계되어 입장이 가능하며, 공식명칭은 시드니 왕립식물원이며 1816년 설립되었고, 특산식물, 해외식물, 멸종희귀식물 등 4,000여종의 식물이 재배되고 있다.



< 오페라하우스 >



< 하버브리지 >



< 오페라하우스 >



< 보타닉가든 >

□ 아그로돔, 와카레와레아 민속마을



< 아그로돔 농장 >



< 와카레와레아 민속마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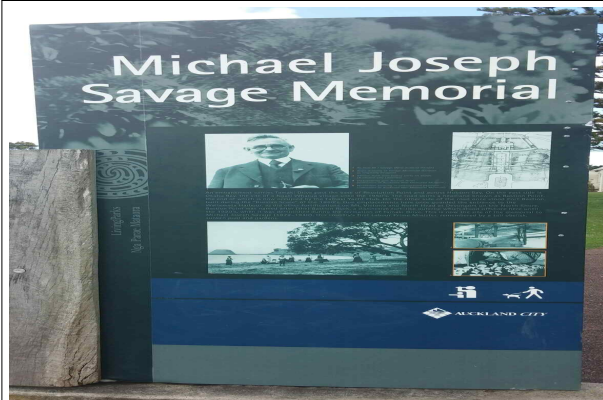
아그로돔 농장은 뉴질랜드가 농업, 낙농업, 축산 등 1차산업이 발전한 국가의 대표적인 사례로써 약300 에이커의 농장으로 8각형의 목조건물 안에서는 양털 깎이 쇼와 양몰이 개의 묘기가 펼쳐진다. 또한 천정 자연환경 속에서 양, 알카파, 칠면조 등 많은 동물들과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원주민 마오리족의 생활모습과 과거의 흔적이 있는 이곳은 문화공연이나 회의 모임장소로 지금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토종 자생식물인 고사리를 주로 활용하여 움막집과 음식저장고, 도구 및 무기가 있는 전형적인 마오리 마을을 엿볼 수 있었고 현재도 마을담벼락도 고사리 나무를 이용하여 만들어 놓았다.

그 주변에 위치한 간혈천에서는 진한 유황냄새와 함께 연신 수증기를 뿜어내고, 우리는 꽃샘추위에 지친 몸을 잠깐이나마 따뜻한 구들장위에서 녹일 수 있었다. 진기하고 특이한 뉴질랜드의 한 모습으로 기억이 될 것이다.

□ 마이클 조셉 기념공원

마이클 조셉 기념공원(Michael Joseph Savage Memorial)은 뉴질랜드의 첫 번째 노동당 출신 총리로 그의 행정부가 추진한 경제복구정책과 사회보장 계획이 대중의 지지를 받았던 'Michael Joseph Savage'(1872~1940)를 기리는 공원이다. 이 공원은 미션베일로 가는 중간 낮은 언덕 위에 있어 오클랜드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화려하진 않지만 형형색색의 꽃으로 장식되어 있고 뉴질랜드 국민들이 즐겨찾는 장소로 결혼촬영 장소로도 유명한 곳이다. 한 정치인을 기리기 위해 공원을 만들고 권위적인 모습이 아닌 누구나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모습으로 기억하려는 모습에서 국민들의 한 정치인에 대한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다.



< 마이클조셉 공원 >



< 마이클조셉 기념비 >

□ 파넬 로즈가든(Dove Myer Robinson Park)

100여 년전 윈트리힐과 콘월파크를 소유하였던 캠블경의 저택으로 지어진 곳이었으며, 지금은 4,500여종의 장미와 식물들로 시민들의 공원으로 피크닉 장소로 애용되는 곳이다.

이곳에는 한국전 당시 뉴질랜드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하여 기념비가 한인회에서 설치하였고 잠깐동안 묵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



< 참전용사에 대한 묵념 >

V. 시사점 및 연수소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연수에서는 크게 두가지의 성과를 이룰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우선 호주에서는 팬리스시 주제로 시청앞 광장에서 상호교류에 대한 기념으로 양국가 국기 게양식을 준비해 주었다. 태극기가 타국에서 애국가 속에서 게양되는 모습은 국내에서는 느끼기 힘든 애국심을 불러일으켜 참가자 모두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앞으로 자매도시로써 강서구와 팬리스시가 더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국가의 문화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돈독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로는 뉴질랜드 방문시 뉴질랜드 국립기술대학인 EIT측과 상호협약을 체결하여 양국가간 교육과 문화교류는 물론 강서구 학생들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 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다.

2014년 기준 호주는 1인당GDP가 세계 5위로 6만 4천불이고 뉴질랜드는 22위로 4만 4천불이고 한국은 33위 2만 3천불정도 차이가 있다.

2014년 OECD행복지수에 따르면 1위 호주, 10위 뉴질랜드, 한국은 25위로 발표되었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조금이나마 이 차이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우선 양국가의 복지정책을 살펴보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일찍이 시작된 복지국가이며 세금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을 듯 하다.

호주는 일찍이 1909년부터 국민복지를 위한 정부역할이 증대하여 고령자연금·장애연금 및 산업수당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고 인상적이었던 것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이며 기부문화였다.

연방 및 주정부의 주택정책도 추진되어 주택 소유자가 전체의 70%정도를 차지하고 이후 본인사망시 정부에 주택을 기부하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있다. 즉 복지정책의 일면에는 국가주도가 아닌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세금정책과 기부문화가 정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무료의무교육제도의 경우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기간은 초등·중등과정 10년입니다. 대학을 제외한 공립 교육과정(12년)은 무상으로 실시되며 대학의 재정은 연방·주의 보조금과 민간의 보조금·기부금으로 충당되고 더불어 각종 장학금도 발달되어 있다.

뉴질랜드는 다양한 연금과 수당을 제공하는 사회복지가 잘 발달된 나라이다.

뉴질랜드의 사회보장제도는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보조를 제공한다. 다른 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는 달리 소득 자원이 세금으로부터 조달되며, 무능력자 수당에는 노약, 질병, 장애가 포함되며 장애자들의 주택개조 및 수리를 위한 대출과 자동차 대출도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가 발달되어 있으며,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유학생이나 관광객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병원은 우선치료하고 국가에 비용을 청구하고 이후 뉴질랜드 정부가 개인을 대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은 사람의 생명을 우선 시하는 문화가 반영된 복지제도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노인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노인복지가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 뉴질랜드이다.

또하나 주목할 점은 양 국가는 1차 산업이 발달된 국가이다. 그렇기에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들의 정책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양국가는 입국시부터 식품반입에 대한 통제가 엄격하다. 주자원인 농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방문했던 시드니 올림픽 경기장에서 발견된 개구리로 인해 재설계를 실시하여 경기장을 이전하고 개구리 공원을 만든 것을 포함하여 기존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하여 올림픽 경기장을 설치하고 경기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처리시설은 연간 850만 리터의 하수를 처리하여 호주 최초로 건설된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비롯한 올림픽파크 내 각종 중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점에서 이들의 친환경적인 정책이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과의 영국 이착민 파키하인들과의 와이탕기 조약을 통해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해 나가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으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사회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세를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연수였다.